

# 팔복동 산단, 문화의 씨앗 뿌린다

### 전주시·문화재단, 예술공장 시범운영 프로그램 오픈·전시행사 개최

지난 50년 동안 전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위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냄새, 소음에 고통받아온 팔복동 주민들을 위해 전주 제1산업단지에 반세기만에 문화를 통한 재생의 씨앗이 뿌려진다.

그 첫 번째로 팔복동의 제1산업단지 내에 25년간 멈춰있던 폐 카세트 공장이 예술공장으로 변화하면서, 낙후된 팔복동 산업단지가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기획단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팔복예술공장의 시범운영프로그램 오픈행사 및 결과물 발표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오픈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일상의 텃밭을 위한 '비밀상의 발견'을 주제로 시범운영프로그램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예술가 18명이 참여해 낡고 오래된 팔복동 산업단지의 기억과 흔적을 독창적인 창작물로 재생시킨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예술가들이 비밀상의 공간인 산업단지를 예술가의 눈과 감성으로 읽어내 설치미술과 영상, 시문드, 페인팅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는 '장소의 탐색' 전시는 강현덕, 김영섭, 데이비트 백 무브먼트(이승연, 알렉스), 박방영, 손몽주, 이자연, 정승, 조혜준, 탁영환, 한석경, 홍남기 작가 등 총 11개 팀(12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팔복동 제1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작품의 소재를 넓혀 사진과 영상, 미디어로 표현하는 팔복암기 '공단파노라마' 전시에는 김범준, 김성민, 김혜원, 오태종, 후즈(이아람, 문경자) 등 5개 팀,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시간 중 팔복예술공장에는 전문 해설사 교육을 받은 팔복동 주민들이 상주하게 되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행사 기간 중 오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총 4회에 걸쳐 '도시의 감성, 팔복을 깨우다'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8일 첫 시간에는 임순철 한국기록연구소 소장의 '기억,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김성원 적성기술 연구자의 '유리 판지가 만든 특별한 놀이', 전시 참여 작가들의 '창조, 예술과 기술의 융합', 니나 킵('사라지고 싶은 날' 저자)의 '치유, 세상을 향한 작은 위로'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토크콘서트는 1부 토크콘서트와 2부 참여프로그램 형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기획단은 '기억의 공유, 천명의 얼굴과 마음, 예술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소 재생에 힘쓰고 있다.

'기억의 공유' 작업은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소장 함한희)가 소택스공장의 근로자와 역사, 카세트테이프 공장(소택스)과 음악산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현재 채집과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 팔복예술공장 기획단은 장소의 재탄생을 위해 '천명의 얼굴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 라운딩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팔복예술공장 시범운영프로그램의 관람을 원하는 단체는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063-283-9221) 또는 팔복예술공장 기획단(063-211-028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역 ICT 포럼 공동 워크숍'이 21일 전주 로니관호텔에서 열렸다.

## 전주·대구·대전 ICT 전문가 '한자리에'

### '지역 ICT 포럼 공동 워크숍' 전주 개최

전주와 대구, 대전 등 3개 지역 IT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ICT(정보통신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ICT융합발전포럼·대구IT포럼·대전IT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역 ICT 포럼 공동 워크숍'을 전주로니관호텔에서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ICT 포럼간 정보교류와 협력증진 환경을 조성하고 초광역권 협력사업 논의 등 지역 ICT 산업을 활성화할 취지로 기획했다.

워크숍에서는 'ICT 혁신의 미래(인공지능)'를 주제로 한 원광대학교 한성국 교수의 발표와 '효과적인 기업지원 위한 공동포럼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북대학교 박광진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각 지역별 ICT 선두기업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전주에서는 (주)아이티스테이션 전석기 대표가 '차세대

패치관리시스템'을, 대구에서는 (주)세종아이에스 설진현 대표가 'IS를 넘어 ICT로 여는 새로운 세상'을, 대전에서는 동진컴퍼니 최동진 대표가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주제로 기업과 제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전주·대구·대전) 간 상생협력을 통한 ICT융합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도 마련됐다.

김용성 전북ICT융합발전포럼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포럼 간 연계 및 지역 ICT기업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이 협력하는 ICT기업의 공동 발굴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ICT포럼의 공동 워크숍은 지난 2013년 전북ICT융합발전포럼과 대전IT포럼의 공동포럼에서 출발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대구IT포럼이 참가해 올해로 4회째 개최됐다. /김영재 기자



전 세계 23개국 120여 명의 차세대 한인 지도자들이 참가한 제19차 세계한인차세대 대회가 지난 21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폐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계 각국 차세대 한인 지도자들 전주로

### 23개국 120여명 참가 성황

전 세계 23개국 120여명의 차세대 한인 지도자들이 참가한 제19차 세계한인차세대 대회가 한 달간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폐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이번 '제19차 세계한인차세대 대회'는 전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재외동포 중 한인사회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번 차세대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차세대 세계시민포럼과 국무총리공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으며, 지난 20일 마지막 행사인 전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주에서 이틀간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학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폐회식에는 조봉업 전주부시장이 참석해 차세대 한인들의 세계 리더로서의 활약을 당부하고, "앞으로 전주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재외동포는 약 700만 명으로, 시는 마크김(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엘리사리(뉴질랜드 국회의원), 연아민(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등 다수 리더들을 배출해 낸 이번 대회의 폐막식을 통해 차세대 한인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한옥마을 문화시설 현황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1일 소리문화관, 최명희문학관, 어진박물관 등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대상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시찰에 나섰다.

위원회는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박물관·문화관 10개소를 비롯한 한옥마을 문화시설 22개소를 방문, 시설 관리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사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위탁대상 사무를 꼼꼼히 살펴봤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장애인 화합 한마당 시청강당·노송광장서 열려

전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신재석)는 21일 전주시청 강당과 노송광장에서 전주시장애인 및 가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7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당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전주시장애인 상호간의 친선과 화합 도모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품드장애인의 협회 전주시지회 등 10여개 장애인단체 회원과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트와 윗놀이, 팔씨름, 고리걸기 등의 종목에 통해 우정을 쌓았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50여 명에게 전주시장 표창과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전주시교육지원청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각종 편의시설 발굴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시흥·청주복지재단 견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재단법인 '전주사랑' 설립을 위해 타지단체 복지재단 벤치마킹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시흥시의 민간복지시설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시흥시 1%복지재단을 방문, 천숙향 사무국장으로부터 복지재단의 설립 경위와 의료검진비 지원사업 등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청취했다.

또 의원들은 1:1 질의답변에서 시흥시와 민간복지시설의 협력적 복지네트워크 구축 방안, 복지재단 운영으로 나타난 복지환경의 긍정적 변화 등을

논의하며 전주시가 설립 추진 중인 '전주사랑'의 방향설정과 저소득층의 복지육구 충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모색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인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을 찾아 복지정책 발굴 등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영환 위원장은 "충충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다"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재단법인 '전주사랑' 설립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올스타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